

ITU-T TSAG 국제회의 동향

이종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전기통신자문반은(ITU-T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ITU-T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이다. 또한 ITU-T A 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된 ITU-T 작업방법 및 ITU-T 산하 구조(Work programme),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를 다룬다.

이번 TSAG 회의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화회의로 개최됐다. 40여 개국 250여 명이, 한국에서는 14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2월 개최 예정인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 Assembly)를 대비하여 작업방법 관련 권고 제·개정, ITU-T 연구반 구조조정 등 WTSA 주요 예상 이슈들을 사전 논의했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연구반 구조조정

ITU-T 사무국은 지난 2월 TSAG 국제회의에서 중복된 연구반의 작업범위에서 관련 이슈 간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ITU-T 사무국 업무 과중을 막고자 현 11개의 연구반을 6개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캐나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 ITU-T 주요 국가는 각국의 입장에 따른 구조 조정안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현 연구반 숫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현 11개의 연구반을 8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연구반 의장단 수임으로 연구반의 표준화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은 WTSA 이후에도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해당 연구반의 분리/통합/폐지에 반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아랍국가(UAE, 사우디, 이집트 등)는 이번 WTSA에서 구조조정을 유보한 뒤, 차기회기 간에 심도있는 분석 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연구반 활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조조정의 장단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WTSA까지 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WTSA에서 연구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2 ITU-T 작업방법 논의

2.2.1 권고(표준) 승인 절차의 변경

ITU-T 권고(표준) 승인을 위한 회람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TAP(Traditional Approval



[그림 1] 현재의 ITU-T 구조

Process)가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보다 엄격한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승인 기간이 짧게 걸리는 AAP 절차를 활용하나, 단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규제와 정책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TAP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AP 회람 절차가 시작된 이후, 특정 국가가 해당 권고안을 자국의 규제 및 정책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TAP 절차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했다. 승인절차 전환 허용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개도국 등)가 TAP를 검토할 기회를 얻는 것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승인 절차 시작 이전에 권고 개발 단계에서 언제든지 승인 절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회람 시작 이후 TAP로 승인 절차를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람을 중단하고 새롭게 승인 절차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들었다. 해당 안건은 양 진영 간 대립이 팽팽하여 WTSA에서도 주요 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2.2 작업그룹(Question) 의장(Rapporteur) 선임 기준 명확화

ITU-T의 각 연구반은 산하에 세부 이슈별 권고를 실제로 개발하는 작업그룹(Question)을 운영 중이다. 해당 그룹의 의장(라포처, Rapporteur)을 새롭게 임명할 시 후보자 제출이나 임명 같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는 특정 작업그룹의 의장을 임명해야 할 때 이를 별도로 공지하는 것과 후보 제출/공표 및 선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각 연구반이 자율적으로 라포처를 임명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이 명확히 정의돼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대국들은 중국의 제안 취지에는 동감하나, 규정을 통해 정의할 경우 회원국 간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또한 다수 후보자 중 라포처 임명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2.2.3 포커스그룹 활동 강화

ITU-T는 실제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 및 작업그룹 외 포커스그룹을 운영 중이다. 포커스그룹

은 특정 이슈에 대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ITU-T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전문가 누구나 참여하여 해당 이슈의 표준화 니즈 분석 같은 사전연구를 수행한다. ITU-T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포커스그룹 산하에 작업그룹(Working group)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포커스그룹 발간물(Deliverable)이 모그룹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모그룹의 발간물 처리 방안을 명시하는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작업그룹 설립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모그룹의 발간물 활용 규정은 포커스그룹 관련 내용을 정의하는 A.7 권고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반의 작업방법을 규정하는 A.1 권고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설 제안된 발간물 활용 규정에 따라 포커스그룹 발간물이 자동적으로 표준화 신규과제로 채택될 수 있게 되면, 현재 ITU-T 회원 및 협력기관만 신규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는 큰 틀을 변경한다는 우려가 있다.

2.3 New-IP

New-IP는 말 그대로 새로운 IP 개념으로, 중국 화웨이를 중심으로 ITU-T에서의 기술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작업그룹(Q)을 신설하고 New-IP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WTSA 결의 제정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New-IP의 표준화가 적절 하느냐는 논의는 기존 IP체계와의 기술적 장단점을 분석하기보다 기존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국제인터넷 주소 기구(ICANN) 및 인터넷기술 국제표준화기구(IETF)와의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가 부각되었다. 중국, 러시아,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은 UN 산하 기구로서 1국가 1투표권 체제를 운영하는 ITU를 통해 현재 선진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New-IP의 표준화를 지지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 WTSA-20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WTSA-20 사전 논의 차원에서 상호 의견을 교류했으나 양측의 의견차가 팽팽하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ITU-T 주요 활동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해당 이슈에 대해 중립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3. 맺음말

이번에 개최된 TSAG 국제회의는 4년에 1회 개최되어, 향후 4년간 ITU-T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WTSA 회의의 준비 성격이 강했다. 9월 회의는 코로나19 관계로 전화회의로 개최됐으며 시차를 고려하여 하루에 3시간씩밖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슈별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선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TSAG과는 별개로 전 세계 6개 지역그룹(아시아, 아랍, 구소련, 미주, 유럽, 아프리카)은 지역별 WTSA 준비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공동 의견 도출을 논의하는 중이다. 앞서 제시된 모든 이슈들은 이러한 사전 논의 회의를 거쳐 WTSA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4년간 우리나라에 유리한 ICT 국제표준화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반구조조정, 연구반 의장단 진출, WTSA 결의 제·개정 등 WTSA 주요 이슈에 대해 TSAG과 WTSA 아시아지역 준비그룹(APT WTSA-20 prep)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 출처: TTA 저널 제192호

(코로나 이슈로 각 표준화기구의 표준화회의가 연기·취소됨에 따라 TTA 저널로 대체합니다)